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배포일	2023. 10. 9.(월)	담당	도건 (010-9686-6068)

‘강서형 기본소득’ 도입 민주당-기본소득당 정책협약식

진교훈 "정책과 가치의 연대" 용혜인 "윤석열정권 심판에 힘 보태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9일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강서형 기본소득 도입’과 진 후보의 보궐선거 승리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진 후보와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상임대표와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정부 심판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도입’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를 위해 △진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신안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그리고 지자체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존의 지자체 기본소득형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역주민 간 불평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한 강서형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협력하고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선거에서 진 후보의 승리에 적극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진 후보는 “단순히 어떠한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정책과 가치의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구청장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기본소득당과 함께 강서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또 강서구 재정 범위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심해지고, 강서에서 김태

우 후보를 공천하면서 국민 무시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의 무능으로 힘든 국민에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유능함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강서형 기본소득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 윤석열정권과 싸울 때 용혜인 의원이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특히 진 후보의 보궐선거에 기본소득당이 힘을 보내주어서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작은 연대이지만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 앞으로 총선까지 연대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김태우 후보 공천 그 자체가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유능한 야당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진 후보가 강서를 넘어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의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창당 후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했는데, 이번에 경쟁 대신 연대를 택한 이유는 정부가 범죄자를 특별사면 시키고 여당이 공천한 강서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진 후보와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정책협약을 맺게 된다는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서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양당은 협약식 직후 집중유세에 함께 참여해 진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해당 집중유세에는 사회민주당(준)도 참여할 계획이다. /끝.